미, 중국 압박 강화…외교·경제·군사 분야까지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래픽=shutterstock

16일 '데일리안' 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재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법안에도 서명했다.

미국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키로 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일국양제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여권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에는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중국 박해 등으로 홍콩 거주자가 미국을 찾는 경우,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조치는 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3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완전한 불법" 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해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불법' 이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는 같은 날 중국과의 회계협정 파기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추가적인 미국 증시 상장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맞대응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할 것" 이라며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관(기업)을 제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때리기' 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신냉전' 에 비유되는 미중 대결 구도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영국 "러 후원 해커가 코로나19 백신 자료 탈취 시도"

러시아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 집단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개발과 치료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17일 '노컷뉴스' 가 로이터 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영국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성명을 통해 '코지 베어' 로 알려진 해커 그룹 'APT29' 가 학계와 제약업계의 코로나19 연구 성과를 해킹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NCSC는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싸우는 필수적인 노력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규탄한다." 고 밝혔다.

'코지 베어' 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을 해킹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커 그룹으로, 러시아 정보기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과 동맹들이 백신을 찾고 글로벌 보건을 지키기 위한 힘든 노력을 계속하는 와중에 다른 이들은 무모한 행동으로 이기적 욕심을 추구하고 있다." 며 러시아 정보기관을 겨냥했다.

NCSC는 해커들이 특정대상을 목표로 하는 스피어 피싱과 일반적인 악성소프트웨어를 포함해 다양한 수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커들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 후 실종자 급증

▲ 멕시코 국가방위군이 치후아후아주에 있는 양귀비 밭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멕시코에서 생사도 모른 채 실종된 이들이 7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연합뉴스' 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멕시코 내무부는 전날 지난 1964년 이후 실종돼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7만3천20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통계보다 1만1천 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당국은 새로 실종된 이들도 있지만, 이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례들을 찾아내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종자의 대다수는 멕시코 정부가 대규모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인 '마약과의 전쟁' 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발생했다. 196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자는 1천52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만1천678명이 모두 2006년 이후 실종된 이들이다.

2018년 12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후에 실종된 이들도 2만7천871명에 달한다.

생사도 알 수 없는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생업도 뒤로 한 채 수색에 매달리는 이들도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도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 실종자 수색에 힘쓰고 있다.

2006년 이후 멕시코에선 3천978개의 암매장지가 발견돼 6천625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이중 30%는 현 정부에서 발굴된 것이다.

내무부는 올해 상반기 실종자들은 2천3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줄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